

退溪 「林居十五詠」의 詩世界와 意境

손 오 규*

차 례

- | | |
|-----------------|----------------|
| I. 서론 | IV. 靜中持敬과 聞道樂天 |
| II. 林泉幽居와 東魯眞隱 | V. 결론 |
| III. 觀物樂時와 欲識前賢 | |

국문초록

退溪 李滉의 「林居十五詠」은 晦齋 李彦迪의 「임거십오영」을 次韻하여 제목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지 회재의 「임거십오영」 중에서 「悶旱」과 「秋葵」 그리고 「感物」을 빼고 회재의 다른 시 「樂天」과 「記夢」 2수를 보태어 15수를 완성하였다.

회재는 42세 때(1532년) 벼슬에서 물러나 경주 紫玉山 아래에 獨樂堂과 溪亭을 지어 은거하였다. 그리고 45세(1535년) 때에 「林居十五詠」을 지어 隱居之志와 학문적 깨달음 그리고 道의 실천을 통한 正學의 수호와 進退辭受之義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을 탐구하여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仁錄』 등의 저술을 남겨 性理學史에 빛난다. 또 忘齋 孫叔暉와 忘機堂 曹漢輔에게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라는 글을 통

* 제주대학교 교수

해 성리학에 대한 정밀하고도 뛰어난 識見과 학문적 함축을 보였다. 그리하여 회재를 嶺南學派의 창시로 일컫기도 한다.

퇴계는 회재와 동시대인이며 10년의 차이가 있다. 퇴계 또한 性理學史에 빛나는 학문업적을 남겼으니, 곧 「心性論」의 독창적 이론을 전개하고 많은 저술을 남겨 퇴계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분은 東方五賢으로 추앙받으니, 士林과 학문에 미친 영향과 位相은 매우 비범하다. 퇴계가 회재의 「임거십오영」을 차운한 것은 60세(1560년) 때이다. 이 해 11월 퇴계는 奇高峯에게 四端七情을 논변하는 답신을 보냈으며, 또 도산서당이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퇴계 개인의 생애나 학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조선조 성리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때는 회재가 病死한(1553년) 지 7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리고 회재의 復爵에 대한 命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회재의 시를 차운하고 제목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은 회재에 대한 尊慕之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 퇴계는 회재의 삶과 학문을 통하여 도산은거의 전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짐작된다. 나아가 회재의 영남사림과 성리학계의 位相으로 보아, 學統授受에 의한 도학적 전통과 성리학적 세계관 확립을 목적으로 「임거십오영」을 차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시세계와 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林居十五詠」은 평범한 산림생활의 日常이 잘 드러나 있으니, 퇴계가 그리는 이상적 삶이요 陶山隱居의 自樂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퇴계는 참된 은거의 典型을 모색하고 도학적 삶에 대한 연원과 모범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니, 곧 林泉幽居와 東魯眞隱의 意境이다.

둘째, 「林居十五詠」은 회재의 삶과 도학에 대한 景慕之情이 드러나 있으니, 퇴계의 학문정신과 尊賢정신이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퇴계는 도산에 은거하여 敬을 실천하고 학문을 연구하여 대자연의 조화와 順理에 동참하는 道의 경지를 노래하였으니, 곧 觀物樂時와 欲識前賢의 意境

이다.

셋째, 「林居十五詠」은 도산은거를 통해 利慾으로부터 벗어난 지혜의 삶과 승화된 의식의 경계를 형상화하였으니, 內直外方の 敬을 실천하는 自省之心을 노래하였다. 따라서 天命의 두려움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天運의 끝없음을 깨닫게 된 道의 경지를 형상화 하였으니, 곧 靜中之敬과 聞道樂天의 意境이다.

주제어 : 林居十五詠, 次韻, 意境, 紫玉山, 獨樂堂, 陶山書堂

I. 서론

퇴계 이황(1501-1570)의 「林居十五詠」은 그 제목 아래에 <次李玉山韻>이라 되어 있다. 玉山은 晦齋 李彥迪(1491-1553)을 일컫는다. 그래서 <次李玉山韻>이라는 말은, 퇴계가 회재의 「林居十五詠」에 사용된 韻字를 빌어다가 자신의 「林居十五詠」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퇴계는 회재의 韻字와 題目을 그대로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매우 궁금하다. 次韻詩는 흔히 있는 일이며 또 조선조 선비들의 멋스러운 문학 활동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회재와 퇴계 두 학자가 차지하는 조선조 士林에서의 位相과 학문세계가 너무나 비범하다.

正祖는 1792년 3월 閣臣 李晩秀를 영남으로 내려 보내어, 3월 19일에는 경주에 있는 晦齋 李彥迪의 玉山書院에 致祭하고 24일에는 안동에 있는 退溪 李滉의 陶山書院에 致祭케 하였다. 그리고 25일에는 도산에서 과거를 실시하였다. 이 때 과거에 응시한 인원이 무려 칠천 이백 이십 팔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답안지(試紙)를 제출한 사람이 삼천 육백 삼십 이 명이었다¹⁾.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선비들이 참여하였다.

이 때 정조는 敎書에서 말하기를, ‘바른 학문(正學)을 존송하려면 마땅히 先賢을 존송하여야 한다’²⁾라고 하였다. 이것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 致祭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지난 번 邪學이 점차 번지러 할 때 오직 영남 사람들이 先正之學을 삼가 지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이로부터 나의 널리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졌다’³⁾라고 하였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정조는 회재와 퇴계가 邪學을 물리치고 바른 학문을 수호하여 영남 사림들로부터 尊賢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이만수로 하여금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치제케 한 것은, 당시 晦齋와 退溪의 士林과 學問에 미치는 영향과 位相에 대해 임금이 국가적 행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회재 詩 次韻은 사림과 성리학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회재는 「林居十五詠」을 45세인 조선조 중종 30년(1537년)에 지었다. 이보다 앞서 회재는 41세 때인 중종 26년(1531년)에 金安老의 기용을 반대하다가 성균관 사예로 좌천되고 곧 벼슬에서 물러나 경주로 돌아왔다. 그 다음 해인 중종 27년(1532년) 42세 때, 경주 紫玉山 아래에 獨樂堂과 溪亭을 지었다. 그리고 45세 때인 중종 30년(1535년)에 「林居十五詠」을 지었다. 그러므로 회재의 「林居十五詠」에는 자옥산에 묻혀 살아가는 山林之樂과 학문의 이상과 포부가 형상화되어 있다. 또 회재는 같은 해 10월 11일, 자옥산장에 머물면서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여 「記夢」이란 시 2句를 지었다. 이 시의 서문에는, 꿈에 임금의 편전에 들어

- 1) 『嶠南賓興錄』, 書啓(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aks.ac.kr>) 慶尙道慶州府玉山書院 以同月十九日.....陶山書院.....二十四日.....祭畢翌日二十五日設場.....御題揭示使之應製入門七千二百二十八人 收券三千六百三十二張
- 2) 『조선왕조실록』, 정조34권, 16년, 3월2일.(<http://silrok.history.go.kr>) 敎曰 欲尊正學 宜尊先賢
- 3) 위의 책, 정조34권, 16년, 3월2일.
向來邪學之漸染也 惟喬南人士 謹守先正之學 不撓不夔 自是以往 增我曠慕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면서 임금에게 靡不有初 鮮克有終이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殿下 愼終如始 則福祚無窮矣⁴⁾’라고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기몽」이 회재가 자옥산에 묻혀 살게 된 동기를 말하는 동시에 임금에 대한 충의정신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記夢」과 「林居十五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퇴계는 회재와 동시대인이면서도 10년의 차이가 있다. 회재보다는 약간 후배인 셈이다. 퇴계가 회재의 「林居十五詠」을 차운한 것은 60세인 명종 15년(1560년)이다⁵⁾. 이 해 11월 기고봉에게 사단칠정을 논변하는 답신(答奇高峯書辨四端七情)을 보내었으며, 또 도산서당이 완성되어 학문탐구와 교육이 더욱 깊어졌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퇴계 개인의 생애나 학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조선조 성리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때는 회재가 配所에서 病死한(63세, 명종 8년, 1553년) 지 7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리고 아직 회재의 復爵에 대한 명이 내려지지 않았다. 회재의 復爵은 명종21년(1566년)에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회재의 시를 차운하고 제목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은 회재에 대한 尊慕之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훗날 퇴계가 지은 회재의 行狀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짐작컨대 혹시 퇴계는 도산서원 隱居의 전형을 회재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퇴계는 회재의 어떤 점을 흠모하였을까. 그리고 왜 퇴계는 회재를 흠모하였을까. 그리고 퇴계가 도산서원에서 추구하고자 한 산림생활의 이상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아가 퇴계는 회재의 영남사람과 성리학계의 위상으로 보아, 學統授受에 의한 도학적 전통과 성리학적 세계관 확립을 목적으로 「林居十五詠」을 차운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한

4) 이언적, 『晦齋集』, 卷2, 律詩 絕句

乙未冬十月十一日 余在山莊 夢入特進俯伏 上前啓曰 臣有病母遠在 不得久留朝 行將辭去 古人云 靡不有初 鮮克有終 願殿下愼終如始 則福祚無窮矣

5) 권오봉, 『退溪詩大全』, 포항공과대학, 1992, 636쪽.

해답이 바로 퇴계의 「林居十五詠」과 회재의 「行狀」에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회재와 퇴계의 「林居十五詠」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이상에서 제시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동시에 퇴계와 회재의 「林居十五詠」에 나타난 산림생활의 차이점과 고유성은 무엇이며, 퇴계가 추구한 산림생활의 이상은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林居十五詠」의 시세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意想을 결정한다. 그리고 의상의 결합이 곧 意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퇴계의 「林居十五詠」이 형상화하고 있는 시세계와 意境을 통하여 조선조 도학자들이 노래하는 山林生活의 전형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林泉幽居와 東魯眞隱

회재의 「林居十五詠」은 1. 「早春」 2. 「暮春」 3. 「初夏」 4. 「秋聲」 5. 「冬初」 6. 「悶旱」 7. 「喜雨」 8. 「感物」 9. 「無爲」 10. 「觀物」 11. 「溪亭」 12. 「獨樂」 13. 「觀心」 14. 「存養」 15. 「秋葵」이다. 그런데 퇴계는 이 중에서 6. 「悶旱」 8. 「感物」 10. 「秋葵」를 뺐다. 또 4. 「秋聲」은 「早秋」로, 5. 「冬初」는 「初冬」으로, 14. 「存養」은 「存心」으로 제목을 약간 수정하였다. 9. 「無爲」는 「樂時」로, 12. 「獨樂」은 「幽居」로 제목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리고 회재의 다른 시 「樂天」을 「存心」 다음에 넣고, 「記夢」 2수는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林居十五詠」을 완성하였다.

또 퇴계는 「林居十五詠」의 순서를 조금 달리 하였다. 우선 회재의 시 2. 「暮春」을 자신의 시에서는 7번째에 배치하였으며, 9. 「無爲」는 「樂時」로 제목을 바꾸어 5번째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12. 「獨樂」은 「幽居」로 제목을 바꾼 다음 6번째에 배치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퇴계의 「林居十

五詠」 1. 「早春」, 2. 「初夏」, 3. 「早秋」, 4. 「初冬」, 5. 「樂時」, 6. 「幽居」, 7. 「暮春」, 8. 「觀物」, 9. 「喜雨」, 10. 「溪亭」, 11. 「存心」, 13. 「樂天」, 14-15. 「記夢」의 순서가 된다.

이런 배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林居十五詠」은 15수의 연작시로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아래에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하나의 작품이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작 이런 연작시의 중요성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주제와 시적의미이다. 그것은 개별 작품의 순서와 배치를 통하여 파악할 수가 있다. 순서는 물론 서열적 나열인데, 배치는 어느 작품을 어느 작품의 뒤나 혹은 앞에 배열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뒤로 인과관계를 가지며 시적 연관성과 친밀성을 말해 주기 때문에 주제의식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퇴계는 회재의 시를 차운하면서도 제목을 바꾸고, 시의 순서와 배치를 달리함으로써 시적의미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회재에게 있어 林居는 자옥산 아래 獨樂堂에 隱居하는 것이며, 퇴계에게 있어서는 陶山書堂에 隱居하는 것이다. 林居는 山林隱居를 의미한다. 山林이란 용어는 山水나 林泉, 江湖, 江海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⁶⁾. 그러면서도 산림은 정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 산림학파라는 말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산림학파는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수에 은거하는 선비계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山水親和의 감정으로 자신이 은거하는 주변 산수의 敍景을 감상하고 順理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회재가 「林居十五詠」의 첫머리 5수에서 자옥산의 春夏秋冬을 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회재의 생각과 의도를 퇴계는 단박에 간파하였으니, 역시 퇴계의 「林居十五詠」 첫머리 4수도 도산산수의 4계절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산수문학에서 산수는 大自然의 대유적 표현이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산수는 天地의 의미와 같이 대자연이나 우주적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6)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8-20쪽.

산수친화의 감정에 의한 순리에 따르는 생활은 대자연의 우주적 질서에 따르는 조화로운 세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재는 봄이 되면 산수를 유람하며 대자연의 萬物이 피어나는 봄의 기운을 온 천지에서 느끼며 생명의 왕성함을 자각하니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早春

구름 드리운 숲에 봄이 되니 경물이 새롭구나
 시냇가 복사꽃 살구꽃은 사람의 님을 빼앗을 듯
 짚신에 대지팡이 짚고 봄경치를 구경하랴더니
 물가를 거닐고 산을 오르니 흥 더욱 즐거왜라

春入雲林景物新 澗邊桃杏摠精神
 芒鞋竹杖從今始 臨水登山興更眞

제 3구는 山水遊賞을 통한 賞心の 확대를 의미하니, 제4구 ‘흥 더욱 즐거왜라(興更眞)’가 그것이다. 시 전체를 살펴볼 때 회재의 산수유상은 범위가 넓다. 시선이 遠景(구름 드리운 숲)에서 近景(복사꽃 살구꽃)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회재는 봄 경치를 자세히 보고 느끼기 위해 짚신에 대지팡이를 짚고 봄 경치 구경을 나선다. 즉 山水遊賞이 시작된다. 숲에서 물가로 그리고 산으로까지 발길을 옮긴다. 그것은 臨水登山을 통해 느끼는 賞心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수유상의 즐거운 마음(賞心)을 스스로 자각하고 ‘흥 더욱 즐거왜라’라는 감탄에 젖게 된다. 매우 動的이다.

그러면 퇴계의 시 ‘早春’을 살펴보자.

早春

납주에 감도는 봄빛이 눈을 비취 새롭고
 따뜻한 봄기운 느끼니 몸과 마음 즐겁구나
 개인 처마의 새소리는 손님 부르는 듯한데
 눈 내린 시냇가 매화는 숨어있는 선비인가

臘酒春光照眼新 陽和初覺適形身
 晴簷鳥哢如呼客 雪磻梅寒似隱眞

납주(臘酒)는 지난 해 선달에 빚어 새 봄을 맞아 비로소 술독을 연다. 그러니 납주를 마시는 것은 봄이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매우 즐겁고도 새로운 봄의 情趣이다. 따라서 제 1구는 퇴계가 납주에 감도는 봄빛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움을 말한 것이다. 즉 납주를 통하여 봄이 왔음을 알고, 천지자연의 기운을 몸으로 느껴 새로운 생명감으로 충만된 것을 말한다. 제 2구에서는 봄기운을 온 몸으로 지각하고, 경험과 느낌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된다. 그러니 천지에 가득한 봄기운은 天地運行的 秩序요 理法인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개인 처마, 새소리, 매화 등에서 봄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곤 봄이 가득한 산수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아마도 봄이 오면 반가운 손님들의 내왕이 많아질 것이요. 또 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벼슬을 떠난 한가로움과 도산에 은거하는 삶을 만족해 할 것이다.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도 많으니, 세속적 이익을 멀리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눈 내린 시냇가의 매화처럼 호젓이 홀로 피어 大自然의 順理를 어기지 않는 自樂을 希求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의 山水樂도 회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시는 계절감 그리고 景物을 통한 哲理探索과 함께 도산은거의 한가로움이 강조되어 있으니, 매우 사색적이고 靜的이다. 회재가 물을 찾고 산을 오르며 봄을 만끽하는 대신 퇴계는 고요히 봄의 造化를 탐색하고 몸으로 느끼고 있다. 곧 도산서당에서 자연의 조화로움을 깨치는 희열과 함께 사색을 통한 靜觀의 靜謐함을 內的凝視를 통해 自覺하고 있다. 그리고 大自然의 哲理와 인생의 順理에 대해 사색하며 그것을 모색하는 도산은거의 즐거움을 山水樂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회재의 「林居十五詠」 첫 머리 5수는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노래하였는데, 대체로 산림은거의 한적함과 경물에 대한 감상과 상심을 對我的 입

장에서 노래하고 있으니, 이념적 요소가 중심을 이룬다. 특히 「秋聲」과 「冬初」가 더욱 그러하다. 즉 「秋聲」에서는 달 밝은 밤 누각 난간에 기대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귀밑털이 서리 내린 듯 희끗희끗하다(商音一曲無人會 鬢上霜毛四五莖)고 노래함으로써 흐르는 세월과 인생의 덧없음을 반추하고 있다. 「冬初」에서는 겨울이 되어 만물이 시들어 가지만 홀로 선 소나무가 歲暮에도 푸른빛을 드리운 것을 사랑한다(山中百物渾衰謝 獨愛寒松歲暮青)라고 노래함으로써 소나무의 節義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자옥산 독락당에 은거하는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비록 세상이 大義를 잃고 있으나 자신만은 세상을 위한 節義를 버리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시에서 회재가 사대부로서 절의를 지켜 국가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큰 뜻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퇴계도 「林居十五詠」 첫 머리 4수에서 사계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회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퇴계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회재와는 그 시 세계가 조금 다르다. 회재는 사계절을 노래하면서 세속을 벗어난 초연한 심경과 은거의 한적함 그리고 개인적 고독의 정서와 함께 節義가 묻어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퇴계는 산림에 은거하는 평범한 산골생활의 日常이 잘 드러나 있다. 매우 현실적이며 생활적이다. 마치 일상을 이야기 하듯 평범한 언어와 표현으로 자신의 산림은거를 형상화하였다. 어떤 이념적 요소도 개입되지 않았다. 그저 산골 농가의 사계절과 생활의 모습을 노래하는 듯하다.

즉 「初夏」에서는 보리추수와 닭과 개 그리고 뽕나무와 삼이 자라는 田家の 일상사(田家相賀麥秋天 雞犬桑麻任自然)를 노래하였다. 이 시는 매우 회화적이며 청각적이나, 意想들이 共感覺的이다. 펼쳐지는 농촌 풍경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듯 선명하다. 보리를 타작하는 풍경이 보이고 닭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뽕나무와 삼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매우 평범하고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다. 사람들은 보리타작을

하며 겨우내 춥고 배가 고했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대에 차 있다. 가축들이 우리에 가득하고 비단을 만들기 위해 뽕나무를 가꾸고 삼을 키워 김쌈에 열중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주자의 「武夷權歌」 제9곡 2구 ‘桑麻雨露見平川’과 유사하니, 곧 별천지(奇絶處)가 평범한 일상에 있음을 깨닫는 유학자의 산림은거를 노래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시 「早秋」와 「初冬」, 「幽居」, 「暮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早秋」에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으며 가을이 왔음을 알며(切切陰蟲聽到明), 「初冬」에서는 농사가 끝난 뒤의 한가함(卒歲幽風事爾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사계절은 田家の 생활이며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퇴계가 그리는 이상적 삶이요 산림은거의 自樂이니, 幽居라고 하였다.

幽居

벗을 사귀는 마음, 월단에게 묻지 마오
 쇠약해지는 얼굴 풍진에 건디기 어렵구려
 가난에도 불구하고 요즘 거처를 옮겼더니
 앞은 맑은 강이요 뒤에는 푸른 산이네
 不用交情問越壇 風塵難與抗衰顏
 撥貧近日移三徑 前對清江後碧山

이 시는 회재의 「林居十五詠」 중 12. 「獨樂」을 차운하여 제목을 바꾼 것이다. 회재의 「獨樂」 제3구는 欲識箇中奇絶處이다. 이 시구는 주자의 「武夷權歌」 「序詩」 제3구의 구절을 그대로 借用하고 있다⁷⁾. 따라서 이 시구의 意想은 주자가 武夷精舍에서 산수와 더불어 학문하던 정신의 계승이다. 즉 회재는 자옥산 아래 獨樂堂을 무이정사에 비하면서 자신도

7) 손오규, 위의 책, 383쪽 참조.

산림에 묻혀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도를 노래한 것이다. 회재가 주자의 무이산 은거를 본받으려 한 마음을 퇴계는 경모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도산에 묻혀 산수를 감상하며 학문의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것이다.

더구나 이 해에는 도산서당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제 3구 ‘삼경을 옮겼다(移三徑)’는 도산서당이 완성되어 학문대성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제 4구는 背山臨水의 서당 주변 산수를 노래하였으니, 곧 퇴계와 도산을 말한다. 따라서 퇴계는 이 시에서 주자와 회재의 산수은거를 본받아, 日常 속에서 奇絶處를 발견한 기쁨의 생활, 즉 도산은거를 통한 道の 실천적 삶과 즐거움을 형상화하였다. 이런 자신의 이상적 삶에 대해 「暮春」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暮春

홀옷이 가볍고 경물들 모습이 새로울 제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따뜻한 물가에 앉았노라
 알지 못하겠구나, 증점이 비파 버리고 가버린 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은거의 참뜻을 얻었던고
 單袂衣輕物象新 尋花問柳坐陽濱
 不知舍瑟人非後 東魯何人見得眞

제2구는 程子の 시 ‘訪花隨柳過前川’의 意境과 유사하다. 그리고 제 3구는 曾點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또 東魯란 우리나라를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증점과 함께 공자를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제 회재의 시를 살펴보자.

暮春

봄이 깊어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새로울 제
 홀로 거닐며 읊조리다 시냇가에 멈춰 서서
 봄에게 묻노니 산중에 무슨 일이 있는고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니 저절로 천진하구나

春深山野百花新 獨步閑吟立澗濱

爲問東君何所事 紅紅白白自天真

회재가 「暮春」에서 노래하는 심경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회재의 「暮春」 제 2,4구와 퇴계의 「暮春」 제 2,4구의 의경은 같다. 단지 회재는 천지 만물 속에서 대자연의 조화를 보고 있는 자신을 형상화하였으며, 퇴계는 천지만물의 조화 속에서 증점, 정자, 회재를 통해 도산은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이것이 퇴계가 「林居十五詠」에서 노래하는 林泉幽居를 통한 東魯眞隱을 실현하겠다는 意境이며, 회재의 「林居十五詠」을 차운한 까닭이다. 즉 退溪는 도산에서의 道學的 삶에 대한 淵源과 模範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후대 書院創建을 통한 학문과 수양의 실천적 삶을 노래하는 문학적 전통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조선조 園林文學의 발전적 계기가 되었다.

Ⅲ. 觀物樂時와 欲識前賢

퇴계의 도학적 삶은 학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 그 학문적 태도와 성격을 「林居十五詠」 5. 「樂時」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樂時」는 1. 「早春」에서 4. 「初冬」까지 4계절을 통하여 퇴계가 느낀 은거와 산수에 대한 총결로, 대자연의 존재적 의의와 이법을 洞見하고자 하는 감상태도가 나타나 있다. 즉 개인적 서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大自然의 理法을 깨닫고 順理에 따르는 道學者의 학문적 삶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樂時

만물이 굽고 펴는 조화, 모두가 천지의 이법이며

음양이 옮겨가며 변하는 것도 각기 때가 있구나

나 홀로 대화당 한잔을 기울이며
 안빈락도 백 편을 길게 읊조리리
 屈伸變化都因數 爻象推遷各有時
 獨飲太和湯一盞 長吟安樂百篇詩

제1구의 ‘都因數’의 ‘數’는 천지자연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근원이며 원인인 ‘理法’을 의미한다. 성리학적으로는 ‘理’를 의미한다. 제2구의 ‘爻象’은 그런 이법에 따라 나타나는 사계절의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推遷’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사물이 ‘이법’에 따른 변화에 순응하여 그 현상을 바꾸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는 그 현상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계절감과 이법의 조화를 알게 된다. 따라서 현상의 변화도 ‘各有時’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볼 때, 객체로서의 자연은 현상적 변화를 스스로 인식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주체인 자아는 현상적 변화를 五感を 통하여 知覺하고 意識을 통하여 근원과 원인을 認識할 수가 있다. 즉 주체는 자연의 현상적 변화를 통하여 대자연의 이법을 깨칠 수가 있으며 그런 깨침으로부터 감동을 느끼게 된다.

성리학적으로 자연의 현상적 변화를 인지하고 근원을 깨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는 학문적 자세를 格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격물을 통하여 근원으로서의 이법을 깨닫는 것을 致知라고 말한다. 이 둘은 이론철학의 영역으로, 묶어서 窮理라 한다. 그런데 주체는 공리를 위해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마음이 利慾에 의해 흐트러지면 변화의 근원을 깨칠 수가 없다. 개인적 利慾에 의하여 公義를 저버리거나 본능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純粹를 상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래서 주체는 항상 현상적 변화에서 그러한 변화의 必然性和 當爲性を 認識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것을 윤리적으로는 善의 실천이라고 할 것이며, 도학적으로는 道의 실행이며, 학문적으로는 眞理의 깨침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 3구에서 퇴계는 4계절의 현상적 변화를 감상하면서 對我的 입장에서 自我的 內的省察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퇴계는 자신의 변화와 의미 그리고 즐거움에 대하여 사색하며 명상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修養論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대자연의 이법을 통해 隱居의 이상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도학의 입장에서는 선비로서의 道를 실천궁행하며 실천적 주체로서의 自我에 대하여 깊이 省察하고 있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이런 내적 성찰의 명상적 자세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 결과 퇴계는 제4구에서 길이 은거의 삶을 영위할 것이라 다짐하고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 그러나 ‘長吟安樂百篇詩’는 은거의 이상과 즐거움을 유지하며 실천적 삶을 살고 싶다는 이상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실천철학의 영역에서는 居敬이라 한다. 따라서 퇴계는 도산에서 居敬窮理의 도학적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회재의 도학적 삶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하고 있다. 퇴계는 회재가 27세에 「五箴」을 짓고 30세에 「立箴」을 지었는데, 그 말이 모두 성현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은 긴절하고도 요긴한 뜻이었으며, 자신의 말을 실천하였으므로 빈말이 아니다⁸⁾라고 하면서 자옥산 독락당 은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경주 서북 자옥산중에 터를 골랐다. 그 암학이 기이하고 계답이 맑은 것을 사랑하여 집을 짓고 살며 집 이름을 독락당이라 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꽃을 심고 날마다 그 사이를 읊조리며 낚시하고 노닐며 세상일을 사절하였다. 방에 단정히 앉아서 독서하며 정밀히 상고하고 궁구하며 깊이 생각하니, 고요 가운데의 공부가

8) 이언적, 『회재집』, 부록, 行狀(한국문집총간 24), 502쪽.

年二十七 而作五箴三十 而又作立箴.....其言 皆古聖賢 躬行心得 切要之旨 其操存省察 於日用動靜之間 微窒遷改 於遵養時晦之際 固已實有所事 而非空言也

전에 비하여 더욱 깊고 전일하였다.....성과 리에 마음을 다하여 성현들이 덕에 나아가 수신하는 방법을 좇아 마음을 깊이 탐색하여 식견이 높고 명석하게 탁 트이니, 소리개가 하늘 높이 날고 고기가 물에서 뛰노는 조화유행의 묘를 즐겼다.⁹⁾

위의 인용문을 살펴볼 때, 독락당에 은거하며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는 회재의 산수은거를 잘 알 수가 있다. 곧 거경궁리의 실천적 삶이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회재가 ‘소리개가 하늘 높이 날고 고기가 물에서 뛰노는 조화유행의 묘를 즐겼다’는 것은 觀物의 관점이 현상을 통한 대자연의 이법을 洞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氣를 통한 理의 세계를 깨치고 있다’고 한다. 즉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물에 대한 관찰이요 철리적 이념의 세계인 것이다. 이런 입장은 퇴계의 시 「樂時」의 제 1,2구의 ‘만물이 굽고 펴는 조화, 모두가 천지의 이법이며, 음양이 옮겨가며 변하는 것도 각기 때가 있구나(屈伸變化都因數 爻象推遷各有時)’와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퇴계는 누구보다 회재의 독락당 생활이 학문과 수양의 도학자적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곤 회재의 삶을 흠모하고 또 도학자의 모범으로 드러내어 기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퇴계의 마음을 欲識前賢이라고 할 것이다. 즉 선현의 삶과 학문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퇴계의 학문정신과 尊賢精神을 말한다.

이것은 퇴계가 조선조 道學의 學統과 正統성을 확립하여 學脈을 수립하고 후세에 龜鑑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런 이상과 실천은 퇴계가 도산에 은거하여 서원창건을 선도하며 교육을 통한 성리학적 세계관의 확립과 조선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한 생애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

9) 이언적, 위의 책, 502쪽.

其罷歸也 卜地於州西北紫玉山中 愛其巖壑環奇 溪潭潔清 築室而居之 名其堂曰 獨樂 益樹以松竹花卉 日嘯咏釣游於其間 謝絕世故 端坐一室 左右圖書 研精覃思 靜中下功夫 比之前時 又深且專一.....潛神性理 遵聖賢進修之方 玩心高明 樂鳶魚流行之妙

「林居十五詠」 8. 「관물」에도 잘 나타나 있다.

觀物

무성한 사물들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고
 아득한 원두처 텅 비어 있지 않으리니
 옛 현인 흥겨워하던 경계, 알고자 하면
 뜰 앞의 풀과 분속에 노니는 고기를 보소서
 芸芸庶物從何有 漠漠源頭不是虛
 欲識前賢興感處 請看庭草與盆魚

이 시는 퇴계가 회재의 시를 차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서 「林居十五詠」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리학의 理致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물감상의 태도를 볼 수 있으니, 理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제1구는 사물이 발생한 근원에 대한 탐색이다. 제 2구는 그 근원으로서의 源頭處 즉 無極而太極은 텅 비어있지 않다고 하였으니, 無極而太極은 공허한 것이 아니요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이요 이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선현들이 대자연 속에서 학문하며 즐거워하던 경계를 알고자 하면, 그것은 현상을 뛰어넘은 이법의 세계인 無極而太極 곧 「理一의 理」를 洞見하는 기쁨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뜰 앞의 풀과 盆 속에 노니는 고기’라는 현상을 통하여 근원으로서의 「理一의 理」를 窮究하여 깨달을 때, 진정한 즐거움의 경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理氣二元論者로서 퇴계의 학문적 관점을 말해준다. 그래서 퇴계는 학문완성을 위해 선현의 학문을 궁구하고 탐색하니, 그런 즐거움의 경계를 발견할 때 景慕之情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회재의 「行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호, 우리나라는 옛날 어진 현인의 교화를 입었으나 그 學이 전하지 않는다. 고려 말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淵源의 증거가 없어 후세 학자로 하여금 찾아서 쫓을 바가 없게 하여 지금까지 泯泯하다. 선생갈

이 授受之處가 없으면서도 성리학에 스스로 분발하여 암연히 날로 환히 드러나 德이 行에 부합하고 빛나는 저술로 말씀이 뒷사람에게 드리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구하되 거의 나란히 하기가 드물 것이다¹⁰⁾.

위의 글을 살펴 볼 때, 퇴계가 「林居十五詠」에서 ‘欲識前賢與感處’를 노래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물론 퇴계가 생각하는 ‘前賢’에는 朱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林居十五詠」에서의 ‘前賢’은 회재 이언적이라고 할 것이니, 퇴계는 우리나라 학자로는 晦齋가 그 학문적 저술과 德行의 실행으로 성리학의 淵源之徵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도산서당의 생활과 지향점을 강조하였으니, 선현들의 이상적 삶을 받들면서도 자신만의 의지와 이상 그리고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퇴계가 도산은거의 전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퇴계의 학문적 체계와 실천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는데, 「林居十五詠」에서는 靜中持敬과 聞道樂天의 意境으로 형상화되었다.

IV. 靜中持敬과 聞道樂天

퇴계의 학문은 「心性論」에서 독창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심성론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탐구하여 善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양론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퇴계는 마음을 心體와 心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심체는 인간이 원래부터 타고난 천부적 상태로서 純善無惡하다. 여기에는 四端이 포함된다. 심용은 마음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접하고

10) 이언적, 『회재집』, 부록, 行狀(한국문집총간 24), 503쪽.

嗚呼 我東國古被仁賢之化 而其學無傳焉 麗氏之末 以及本朝又罔有淵源之徵 使後之學者 無所尋逐 以至於今泯泯也 若吾先生 無授受之處 而自奮於斯學 闡然 日章 而德符於行 炳然筆出 而言垂于後者 求之東方 殆鮮有其倫矣

나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로 七情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단 칠정을 논하면서 퇴계는 사단은 理의 發이요 칠정은 氣의 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理의 發인 사단은 存養하여야 하고 칠정은 省察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존양과 성찰을 합쳐서 敬이라 하니 퇴계철학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칠정에 대한 논의는 좀 복잡하다. 칠정은 마음이 발할 때, 그 순간 利慾의 작용에 의하여 惡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情이 發할 즈음에 성찰을 통하여 利慾의 작용이 여하한가를 살펴 情이 善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마음이 이미 발하였을 때(已發之心)만이 아니라 아직 발하지 아니한 상태(未發之心)까지도 염려하고 잘 살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미 發한 마음(已發之心)은 그것이 利慾의 작용인지 아닌지를 짐작하고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 발하지 아니한 마음(未發之心)은 그것이 장차 발하였을 때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未發之心을 함양하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고 살펴서 행동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니, 그 평소의 모습이 얼마나 신중하여야만 할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선비의 벼슬살이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것은 곧바로 進退辭受之義를 말하는 것이다. 즉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 또 벼슬을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비는 벼슬하여 조정에 나아갈 때나 벼슬에 물러나 독서할 때나, 모두가 土風과 연관이 있으므로 그 진퇴사수에 義理의 올바름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의리라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근원하니, 마땅히 선비는 마음에 근원하는 의리의 올바름으로 進退辭受의 근본을 삼아야만 한다. 그래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觀心

고요 속에 경을 지키려 웃기마저 단정히 하노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이것은 두 마음이니

연평에게 이 뜻 궁구한 것을 물으려 하였으나
 얼음항아리 가을달처럼 아득하여 찾을 수 없음이여
 靜中指敬只端襟 若道觀心是兩心
 欲向延平窮此旨 水壺秋月杳無心

마음이 利慾을 떠나 순수한 상태 즉 타고난 그대로의 性を 지킨다면 만사와 만물이 그대로 비치니, 참된 모습을 잃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속의 삶은 이기심과 욕망이 넘치니 마음이 흐려지기 쉽다. 그것을 염려하여 선비는 벼슬을 사양하며 山林에 은거하여 心性을 도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 본다하여 객체화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을 들여다보는 주체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은 마음으로 느끼고 그 善惡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그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주체가 곧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天命圖說>에서 마음을 설명하되 心體와 心用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퇴계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마음을 분석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을 통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¹¹⁾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하면 전자를 分開看이라 하고 후자를 渾淪看이라 하니, 분개간은 이론적으로 나누어 보는 입장(在理上看)이며 혼룬간은 사물의 입장에서 통합하여 보는 입장(在物上看)인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자신이 설명하는 마음이 在物上看에서 둘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단지 在理上看에서 분석적으로 마음을 性과 情의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제2구에서 밝히고 있다. 즉 觀心(마음을 본다)이라고 하여 하나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보듯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달리하여 설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觀心說을 말하거나 혹은 마음을 사물적 대상으로만 나누어

11) 유명중, 『退溪와 橫說豎說』,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0, 94쪽-97쪽 참조.

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인식의 철학적 입장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즉 퇴계는 인식주체로서의 自我를 강조함으로써, 현상의 근원과 근본에 대한 탐색을 학문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인식주체로서 자아의 순수는 敬을 통한 수양과 마음의 함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제1구의 靜中之敬이 근원이요 근본이다. 靜은 ‘고요’이다. 이 고요는 마음의 고요이다. 그런데 이 靜은 수양에 의해 이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의 상태를 의미한다. 불교가 이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마음의 心體가 인식한 것은 곧바로 그것이 眞相이요 참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心體와 心用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實體가 없는 주관적 인식을 경계하였다. 실제로 心體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항상 心用을 통하여 드러나서야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다.

四端이라는 것도 그것 자체로 드러나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반드시 七情을 통하여 사단이 드러남을 주체가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의 靜이란 것은 인식주체가 스스로의 七情을 통하여 그 靜의 상태를 인식하고 회복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니,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맑고도 텅 빈 정신의 경계요 한가로운 정서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시에서 靜中이란 곧 바로 퇴계가 도산에 은거하여 세속적 얽매임과 사사로운 이육으로부터 벗어난 지혜의 상태요 승화된 의식의 경계인 것이다. 그러나 靜은 아직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았으니, 곧바로 퇴계는 내적자아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고 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그 단초가 ‘옷깃을 단정히 여미노라’인 것이니, 선비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고 자 스스로 警戒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3구에서는 이연평을 통하여 자신의 靜과 敬을 반추해 보고자 하였으니, 퇴계는 또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存心

함께 정신이 혼미하도록 취하였다 홀연히 깨달으니
마음 지키기가 가장 어렵구나, 저 종소리가 징험하네
곧은 마음 반듯한 행동, 모두가 나에게서 말미암나니
엷은 구름 보내어 햇빛의 밝음을 가리게 하지 마소서

同醉昏昏儻有醒 最難操守驗鐘聲
直方工力皆由我 休遣微雲點日明

존심은 마음을 존양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위의 시는 자아성찰의 교훈성이 짙다. 동시에 퇴계의 경험에 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제1구는 세속적인 삶에 휘둘려 靜의 경지에서 敬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에 대한 반추이다. 그리고 문득 깨달음을 얻으니, 마음을 조종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3구는 단순한 認知의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쁨을 내재하고 있으니, 內直外方 즉 안으로는 마음을 곧게 가지고 밖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하여 敬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삶의 실천을 말한다.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고 실천하여야만 할 것이니, 항상 존양성찰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우니, 중간의 흐트러짐은 마음의 淸明함을 흐려놓는 것이라 스스로 경계하게 되어 제 4구와 같이 自省之心을 노래하게 된다. 이 시는 회재의 「존양」을 차운한 것이다.

存養

산에 비가 소소히 내려 꿈에서 저절로 깨어나니
홀연히 창밖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인간의 만 가지 근심, 모두 녹아 사라져버렸나니
오직 마음에는 한 줄기 밝은 빛만이 비취는구나

山雨蕭蕭夢自醒 忽聞窗外野鷄聲
 人間萬慮都消盡 只有靈源一點明

제 1,2구는 제 3구의 경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니, 비 내리는 새벽 산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만려를 벗어난 心境을 묘사하고 있다. 곧 靜의 심경이요 순수의 절정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경계이다. 그리고 회재는 이런 심경의 근원을 사색하고 그것을 깨닫는 기쁨을 자각하게 되자, 마음의 빛이 발하여 어두운 새벽 산중의 절대고독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只有靈源一點明). 따라서 퇴계가 自省之心을 통하여 靜中の 敬을 노래하였다면, 회재는 靜中の 절대고독을 깨닫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으니, 그 사유의 지향점과 심경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樂天

도를 듣고 천명을 즐기는 성인의 경지인데
 안연만이 이 경지로부터 멀지가 않았구나
 나는 이제서야 하늘 두려움을 깨달았나니
 즐거움 그 중에 있으니 노래할 만 하도다
 聞道樂天斯聖域 惟顏去此不爭多
 我今唯覺天堪畏 樂在中間可詠歌

제1구 聞道樂天은 학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의 경지이다. 그 참된 경지를 안연이 터득하였다. 그러니 퇴계도 빈천을 두려워하지 않고 靜中之敬을 실천하며 聞道樂天의 학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도산은거를 통하여 천명과 天運의 끝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대자연과 호흡하는 정신적 境界와 天命을 깨닫는 즐거움을 ‘樂在中間可詠歌’라 노래하였으니, 靜中之敬과 聞道樂天의 意境으로 형상화되었다. 이것은 후대 修養論에 입각한 조선조 士大夫詩歌의 典範이 되었다.

V. 결 론

退溪 李滉의 「林居十五詠」은 晦齋 李彦迪의 「임거십오영」을 次韻하여 제목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지 회재의 「임거십오영」 중에서 「悶旱」과 「秋葵」 그리고 「感物」을 빼고 회재의 다른 시 「樂天」과 「記夢」 2수를 보태어 15수를 완성하였다.

회재는 42세 때(1532년) 벼슬에서 물러나 경주 紫玉山 아래에 獨樂堂을 지어 은거하였다. 그리고 45세(1535년) 때에 「林居十五詠」을 지어 隱居之志와 학문적 깨달음 그리고 道의 실천을 통한 正學의 수호와 進退辭受之義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을 탐구하여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仁錄』 등의 저술을 남겨 性理學史에 빛난다. 또 忘齋 孫叔歐와 忘機堂 曹漢輔에게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라는 글을 통해 성리학에 대한 정밀하고도 뛰어난 식견과 학문적 함축을 보였다. 그리하여 嶺南學派의 창시로 일컫기도 한다.

퇴계는 회재와 동시대인이며 10년의 차이가 있다. 퇴계 또한 性理學史에 빛나는 학문업적을 남겼으니, 곧 「心性論」의 독창적 이론을 전개하고 많은 저술을 남겨 퇴계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분은 東方五賢으로 추앙받으니, 士林과 학문에 미친 영향과 位相은 매우 비범하다. 이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퇴계가 회재의 「林居十五詠」을 次韻한 것은 60세(1560년) 때이다. 이 해 11월 퇴계는 奇高峯에게 四端七情을 논변하는 답신을 보내었으며, 또 도산서당이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퇴계 개인의 생애나 학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조선조 성리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즉 퇴계의 생애 중 도산은거를 통한 학문적 업적과 실천적 모범이야말로 조선조 사림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칭송된다. 그런데 퇴계는 도산서당이 완성되자 회재의 「임거십오영」을 次韻하여 도산은거의 전형을 탐색함과 동시에 회재의 정신과 학문을 찬양하며 景

慕의 情을 기탁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도산에서의 학문연구를 통해 학통과 학맥을 형성하고 후대 士林들의 산수생활과 시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퇴계가 「林居十五詠」을 次韻한 시기는 이미 회재가 病死한(1553년) 지 7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리고 회재의 復爵에 대한 命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회재의 시를 차운하고 제목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은 회재에 대한 尊慕之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 퇴계는 회재의 삶과 학문을 통하여 도산은거의 전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짐작된다. 나아가 회재의 영남사림과 성리학계의 位相으로 보아, 學統授受에 의한 도학적 전통과 성리학적 세계관 확립을 목적으로 「임거십오영」을 次韻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후대 書院創建을 통한 학문과 수양의 실천적 삶을 노래하는 문학적 전통을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셋째, 퇴계는 도산은거를 통하여 자연의 조화로움을 깨치는 희열과 함께 사색을 통한 靜觀의 靜謐함을 內的凝視를 통해 自覺하고 있다. 그리고 대자연의 哲理와 인생의 順理에 대해 사색하며 그것을 궁리하는 도산은거의 즐거움을 山水樂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에 비해 회재는 사계절을 노래한 시들에서 世俗을 벗어난 초연한 심경과 은거의 한적함 그리고 개인적 孤獨의 정서와 함께 節義를 형상화하고 있다.

넷째, 「林居十五詠」은 평범한 산림생활의 日常이 잘 드러나 있으니, 퇴계가 그리는 이상적 삶이요 陶山隱居의 自樂을 노래하였다. 회재에게 있어 林居는 紫玉山 아래 獨樂堂에 은거하는 것이며, 퇴계에게 있어서는 도산서당에 은거하는 것이다. 퇴계는 도산은거를 통해 도학적 삶에 대한 淵源과 모범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니, 「林居十五詠」은 林泉幽居를 통한 東魯眞隱의 意境을 노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山水親和의 감정으로 자신이 은거하는 주변 산수의 敍景을 감상하고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니 자옥산과 독락당, 도산과 도산서당 그리고 「임

거십오영」으로 이어지는 회재와 퇴계의 만남은 본격적인 조선조 園林文學의 발전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林居十五詠」은 퇴계의 학문정신과 尊賢정신이 형상화되어 있으니, 先賢의 학문을 궁구하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회재의 자옥산 은거가 학문과 수양의 도학자적 삶이라고 확신하고 본받고자 하였다. 이것은 퇴계가 지은 회재의 「行狀」에 잘 기술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학자로는 회재가 그 학문적 著述과 德行의 실행 그리고 進退辭受之義에 따른 관리생활로 말미암아 성리학의 淵源之徵이라 여겼다. 따라서 퇴계는 도산에 은거하여 敬을 실천하고 학문을 연구하여 대자연의 조화와 順理에 동참하는 道の 경지를 노래하였으니, 「林居十五詠」은 觀物樂時와 欲識前賢의 意境을 형상화 하였다.

여섯째, 「林居十五詠」은 도산은거를 통해 利慾으로부터 벗어난 지혜의 삶과 승화된 의식의 경계를 형상화하였으니, 內直外方の 敬을 실천하는 自省之心을 노래하였다. 즉 퇴계는 인식주체로서의 자아를 강조함으로써, 현상의 근원과 근본에 대한 탐색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아의 순수는 敬을 통한 수양과 마음의 함양에서 비롯되니, 퇴계가 말하는 靜은 수양에 의해 利慾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퇴계는 마음을 心體와 心用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실체가 없는 주관적 인식을 경계하였다. 나아가 靜의 인식과 회복을 강조하였으니, 靜은 상당히 객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맑고도 텅 빈 정신의 경계요 한가로운 정서를 일컫는다. 따라서 靜은 敬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니, 「林居十五詠」은 天命과 天運의 끝없음을 깨닫게 된 道の 경지를 형상화 하였다. 곧 靜中之敬과 聞道樂天의 意境이 그것이니, 修養論에 입각한 조선조 士大夫詩歌의 典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退溪集』

『晦齋集』

『조선왕조실록』 (<http://silrok.history.go.kr>)

『嶠南賓興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aks.ac.kr>)

권오봉, 『退溪詩大全』, 포항공과대학, 1992.

김길환, 『조선조유학사상연구』, 일지사, 1980.

금장태,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유명중, 『退溪와 橫說豎說』,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0.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손오규, 『퇴계시가예술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유협, 최신희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양명수, 「퇴계의 太極生兩儀 해석의 신학적 의미」, 『퇴계학보』125집,
2009, 1-46쪽.

李 燦, 「四端七情再考」, 『퇴계학보』125집, 2009, 47-92쪽.

손오규, 「退溪 山水文學에서의 藝術精神과 이념」, 『退溪學과 21세기 리
더십』, 국제퇴계학회, 2007, 163-189쪽.

<Abstract>

The World and ‘Eukyeong(意境)’ of Toegye’s
poem ‘Imgeosipohyoung(林居十五詠)’

Sohn, O-Gyu

Toegye Lee Hwang consulted Hoejae Lee On-jeok’s ‘Imgeosipohyoung’ when he composed his poem ‘Imgeosipohyoung’ and used the same title as that of the original. However, Toegye left out ‘Minhan(悶旱)’, ‘Chookyu(秋葵)’ and ‘Gammul(感物)’ from Hoejae’s ‘Imgeosipohyoung’ and added ‘Rakcheon(樂天)’ and ‘Kimong(記夢)’, which came from Hoejae’s other poems, to his own work and completed the poem.

Hoejae retired from his position in the government when he was 42 (1532) and secluded himself on Mount Jaok in Gyeongju area. He wrote ‘Imgeosipohyoung’ in 1535 when he was 45, embodying the meaning of retiring to a hermitage, academic enlightenment and the pleasure coming from fulfilling ‘Do(道)’. His poem also showed the spirit of learning in the right way and the duties of entering into government service and retiring from it.

Toegye wrote his poem ‘Imgeosipohyoung’, referring to the rhyme of Hoejae’s poem, in 1560 when he was 60. In November of that year, Toegye replied to Gigobong about ‘Sadanchiljeong(四端七情)’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Dosanseowon. These two things have a very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in Toegye’s life and studies and in the Neo-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Thus, it is believed that Toegye used the rhyme of Hoejae's 'Imgeosipohyoung' in order to establish the tradition and view of the world of Neo-Confucianism through seeking the model of retirement and succeeding a scholastic mantle based on Hoejae's life and studies. The World and 'Eukyeong(意境) of Toegye's poem 'Imgeosipohyoung'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ly, 'Imgeosipohyoung' demonstrates ordinary life in a forest, singing the ideal life which Toegye envisioned and the joy of the retirement life at Dosanseowon. Therefore, Toegye sought a exemplary life of retirement and tried to trace the origin of ethical life and fulfill it.

Secondly, 'Imgeosipohyoung' shows that Toegye embodied his academic spirit and sense of tradition through respect for Hoejae's life and studies. Thus, in his poem, Toegye described the mastery of Do (道) in which he fulfills 'Kyeong(敬)', studies and participates the harmony and principles of nature.

Finally, 'Imgeosipohyoung' manifests his knowledge free from interests and desire and sublimated consciousness through his retirement life in Dosanseowon. In other words, he praised the mind of self-discipline through which one can perform moral training and act in the right way.

Key Words : Imgeosipohyoung, Eukyeong, Hoejae, Toegye, Mount Jaok, Dosanseowon, Kyeong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